

醫學入門의 寸關尺에 관한 考察

李秀暻, 朴元煥*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 Study on the Cun, Guan, Chi (Inch, Bar, Cubit) from the Elementary Course for Medicine(Yi Xue Ru Men)

Soo-Kyeong Lee, Won-Hwan Park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Feeling the pulse is based on the pulse condition and alteration to observe the condition of the human body's health and by using a healthy person's pulse as a standard we are able to analyze the patient's pulse to find the attacked channel and collateral, viscera and bowels and understand the pathology such as diseases caused by exogenous evil, disorder of internal organs, and seven modes of emotions. Observing the color and shade of the patient's face, listening carefully to the sound of the patient, and feeling the pulse are methods in accordance with Su Wen "Plain Questions", "The Classic on Difficulty" (5th century B.C. Bianque), "The Classic of Sphymology" (280 A.D. Wang Xi), "Pulse Formulas" (1189 A.D. Cui Jiayan), and is systematically edited for those who have started studying to easily reach the profound state. Therefore, "The Elementary Course for Medicine" has been used from ancient times as the textbook for diagnostics.

Methods: In this Study, we will inspect commonly used pulse feeling methods, the inch, bar, cubit thesis, the viscera and bowels thesis from The Elementary Course for Medicine and inquire the difference of the text from "Plain Questions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Classic on Difficulty".

Results and Conclusion: 1. In "The Elementary Course for Medicine" the site of the wrist along the pulsation of the radial artery is divided into inch, bar, cubit and has defined the inch, bar, cubit crossways. 2. In "The Elementary Course of Medicine" the inch, bar, cubit for the left hand and right hand is subjected to each viscera and bowel. By assigning the left hand's inch, bar, cubit to the cardiac orb, the hepatic orb, the renal orb, and the right hand's inch, bar, cubit to the pulmonic orb, the splenic orb, the vital gate it has been able to feel the pulse for each viscera and bowel by using the interpromoting and interacting relation of the five evolutive phases.

Key Words: Feeling the pulse, the Elementary Course for Medicine(Yi Xue Ru Men), Cun, Guan, Chi (Inch, Bar, Cubit)

·접수: 2005년 12월 1일 ·심사: 2005년 12월 15일 ·채택: 2005년 12월 20일

* 교신저자 : 박원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054-770-2373
E-mail : diapwh@dongguk.ac.kr or jindanhak@hanmail.net

I. 緒 論

脈診은 四診가운데 切診에 屬하는데 脈의 常과 變에 根據하여 人體의 健康 狀態를 살

피고 정상인의 健康한 脈을 基準하여 患者의 病脈을 分析해 내어 病이 있는 經絡, 臟腑를 찾아 外感, 內傷, 七情 등의 病理를 살필 수 있게 한다. 脈診은 그 외에 疾病의 進退와 豫候를 推斷할 수 있게 하며, 診斷의 手段的인 面에서 쉽고, 여러 診斷方法 중 가장 便利하며, 중요한 診斷 方法 중의 하나이다.

診脈에 대해서는 <黃帝內經>¹⁾에 最初로 나타나 있고, 診脈法은 經脈의 搏動處를 切診하는 遍診法인 十二經診法과 三部九候法이 있으며, 또한 氣口人迎法과 氣口診脈法等이 있다. <難經>의 診脈法은 十六難에서 언급한 三部九候法, 陰陽法, 輕重法 등이 있다. <內經>의 三部九候法은 全身을 九候로 나누어 살피는 遍診法인데 반해 <難經>의 三部九候法은 寸口 한곳을 三部와 浮中沈으로 나누어 살피는 獨取寸口法이다. <難經>의 三部九候法은 全身을 두루 살피는 <內經>의 三部九候法에 비해서 簡便하고 實用的인 診脈法이기 때문에 後代의 診脈에 影響을 많이 미치게 되었다. <傷寒論>의 診脈法은 氣口診脈法, 足陽明趺陽脈診法 및 足少陰太谿脈診法 등이 있는데, 足陽明趺陽脈診法은 脾胃之氣의 狀態를 爲主로 살피는 診脈法이며, 足少陰太谿脈診은 腎氣의 盛衰를 살피는 診脈法이다. 臨床上 脈과 證을 結合시켜 辨證을 하는 客觀的 根據를 마련하였다. <脈經>은 寸口診法에 있어 寸, 關, 尺의 길이 및 寸, 關, 尺의 主關 臟腑를 해결하였으며, 脈狀을 24種으로 整理하여 各脈狀을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以後 여러 醫家들에 의해 <內經>, <難經>, <傷寒論>, <脈經>의 理論들이 體系的으로 發展하게 되었으며, 診脈에 대한 理論과 臨床이

結合되고, 臨床에 있어 病證을 살피는데, 脈診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醫學入門> 가운데 診法부분인 觀形察色, 聽聲審音, 診脈은 <素問>, <難經>, <醫經小學>, <脈經>, <脈訣指掌病式圖說>, <醫學權輿>, <脈訣>을 遵用하였으며, 初學들이 診斷學에 入門하여 심오한 境地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現수에 이르기까지 診斷學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醫學入門> 脈診, 寸關尺定位, 臟腑定位에서 寸, 關, 尺과 三部九候를 살펴보면 寸, 關, 尺은 診脈部位를 뜻하며, 이는 三部九候로 설명하였는데 <難經>의 三部九候 중 三部를 살펴보면 尺은 關에서 尺澤側으로 一寸, 寸은 關에서 魚際側으로 九分까지의 部位이며, 九候는 各部의 浮中沈이라고 하였다. <入門>에서는 手掌의 뒤에 高骨을 '關'이라 하고, 高骨옆을 關脈의 모양이 뚜렷하게 있어 次第로 寸, 關, 尺으로 配列하여 天, 地, 人 三元에 配合한다 하였다. 그런데 <內經>에서는 이를 '氣口'라 지칭하며, 이 氣口는 五臟六腑에 氣의 狀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으로 診脈이 容易하여, <素問, 五藏別論>에는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라 하여 氣口遍診으로 浮沈을 구분하여, 五臟六腑의 氣를 分析해서 健康狀態를 살핀다 하고, <傷寒論>에서도 三部 寸, 關, 尺의 診脈方法을 氣口の 浮, 中, 沈으로 認識 하여, <入門>에서 三部九候를 論하는 것과 多少 差異가 있으며, 三部九候에 대해서도 同一視하지 않고 寸, 關, 尺의 部位를 垂直的, 浮沈으로 說明하였다. '張機²⁾'의 '桂林古本³⁾<傷寒雜病論>에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2) 張機, 東漢時代의 醫學家. 字는 仲景이며 河南 南陽人. <內經> 등 古典醫籍의 理論에 의거하여 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창조성 있는 <傷寒雜病論>을 저술 하였다.

서도 脈을 三部로 나누어 浮部는 皮膚經絡을, 沈部는 五藏을, 中部는 六腑를 살핀다 하여 <入門>의 橫的으로 說明한 寸, 關, 尺 部位와 多少 差異가 있다.

그러므로 本 發表에서는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入門>의 橫的 寸, 關, 尺 位置와 <傷寒論>의 浮中沈과 寸關尺의 意味가 같은 意味로 使用 되었는지의 與否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原文은 李梴의 <醫學入門>을 기본으로 하였다.
2. <醫學入門>의 寸關尺의 位置와 診脈법을 <內經><傷寒論><難經>과 비교 검토 하였다.
3. <醫學入門>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原文, 註釋 그리고 解釋을 整理하였다.
4. 本 論文에 사용한 인용문헌은 < >로 표기하였다.
5. 本 論文에 사용한 인용문구는 “ ” 혹은 ‘ ’로 사용하였다.

III. 本 論

<醫學入門>은 朱丹溪의 再傳弟子인 明代의 劉純 선생이 1388년에 <內經>, <難經>과 張仲景, 王叔和, 劉河間, 張潔古, 朱

3) 桂林古本: 현재 전해지고 있는 傷寒論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桂林古本도 그 중의 하나이다. 本書는 淸대의 左盛德이 소장한 책을 芥菴의 羅哲初가 手抄한 것이다. 본서는 六經辨證, 雜病辨證, 平脈法을 포괄하고 있고, 成無己의 註인 註解傷寒論과는 달리 六氣의 主客과 傷暑病脈證並治, 熱病脈證並治, 濕病脈證並治, 傷燥病脈證並治, 傷風脈證並治, 寒病脈證並治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丹溪 등 諸家の 學說을 參考閱覽하고 그 精要를 모아 韻語 등의 형식으로 편찬한 <醫經小學>을 원본으로 하고 李梴선생이 다시 1575년에 諸家學說을 참고 보충하여 分類編纂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醫學略論, 醫家傳略, 經穴圖說, 經絡, 臟腑, 診法, 鍼灸, 本草, 外感病, 內傷病, 雜病, 婦人病, 小兒病, 外科病, 各科用藥 및 救急方이 포괄되어 있다. 各家的 學說을 인용한 이외에도 자기의 견해를 덧붙여서 正文은 歌賦로 만들어 暗誦하기 쉽게하였고 부족한 내용은 註釋을 가하여 보충 설명하였으니, 冊名과 相符한 醫學의 入門書이다.

1.<醫學入門>의 ‘診脈扁 原文 및 解釋

(1) 診脈

榮行脉中⁴⁾ 衛行脉外⁵⁾ 脉者 所以主宰榮衛 而不可須臾⁶⁾失⁷⁾也. 從⁸⁾月從永 謂得此可永歲月也 古[맥]⁹⁾字 從血從[비]¹⁰⁾ 所以使氣血¹¹⁾ 各依¹²⁾分派¹³⁾ 而行經絡¹⁴⁾也. 醫

4) 榮行脉中(영행맥중); 脈管속에서 精氣가 운행되는 것을 말한다. 榮氣는 水穀에서 化生되고 脾胃에서 發源되며 中焦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성질이 온순하고 血液으로 化生되며 전신을 營養한다.
 5) 衛行脉外(위행맥외); 衛氣는 주로 血脈밖을 따라 순환하면서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살갓과 주리를 영양하여 外邪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6) 須臾(수유); 寸刻. 斯臾. 잠시.
 7) 失(실); 得之反, 잃을 실
 8) 從(종); 隨也, 따를 종
 9) 맥(맥); 血理之分表行體者, 맥 맥. 脈脉字와 같음.
 10) 비(비); 水邪流, 물굽어흐를 비
 11) 氣血(기혈); 氣와 血. 氣는 체내에 유동하고 있는 풍부한 營養的 精微物質이고, 血은 水穀의 精微로 脾胃에서 흡수된뒤 肺의 氣化機能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신체 各組織을 영양하고 보는 것, 걷는것, 쥐는것, 피부의 감각 등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12) 依(의); 循也, 좇을 의
 13) 分派(분파); 나뉘어 갈라짐.
 14) 經絡(경락); 인체내의 經脈과 絡脈으로 크게 순행하는 幹線을 모두 經脈이라 하고, 經脈에서 갈라져 신체의 각 부분을 連繫하는 支脈을 絡脈

者 由¹⁵⁾脉¹⁶⁾ 以識¹⁷⁾經絡虛實 由經絡虛實
以定藥之君臣佐使¹⁸⁾ 及鍼灸穴法 是脉 乃醫
之首務¹⁹⁾. 世俗²⁰⁾ 偏²¹⁾熟脉訣²²⁾ 而不知脉
經²³⁾ 專習單看²⁴⁾ 而不知總看²⁵⁾ 其實上古
診法 有三 其一 各於十二經動脉²⁶⁾ 分爲三
部²⁷⁾ 候²⁸⁾各臟腑 其二 以氣口²⁹⁾人迎³⁰⁾ 決

內外病因³¹⁾ 其三 獨取寸口³²⁾ 以內外³³⁾ 分
臟腑 以高下³⁴⁾ 定身形³⁵⁾ 以生剋³⁶⁾ 定榮
枯³⁷⁾ 以清濁³⁸⁾ 論窮通³⁹⁾ 故 曰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之生死吉凶⁴⁰⁾也. 茲⁴¹⁾ 以素
難⁴²⁾ 爲主 兼采仲景⁴³⁾ 及脉圖⁴⁴⁾脉經 脉訣
正傳⁴⁵⁾權輿⁴⁶⁾而補之 以便初學 誦讀⁴⁷⁾.

(解釋)

營血은 血脉 가운데로, 衛氣는 血脉 밖으
로 유행하니 脉이란 營衛를 主宰하는 것으

이라 한다. 經脈은 전신의 氣血을 운행하고 臟腑와 肢節을 연계하여 上
下內外를 連繫시키고 체내의 각 부분을 조절하는 통로로서 經絡系統의
연계를 거쳐 인체로 하여금 하나의 有機體를 이루게 한다.

- 15) 由(유); 自也, 부터 유
- 16) 脉(맥); 脈狀을 가리킨다.
- 17) 識(식); 見識知也認也, 알 식
- 18) 君臣佐使(군신좌사); 方劑의 구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君藥은 方劑중에서 主症을 치료하고 주요한 작용을 하는 藥物로 한 두가지를 쓰게 되며, 臣藥은 主藥을 협조하여 치료작용을 하는 藥物이다. 佐藥은 主藥을 協助하여 兼症을 치료하거나 主藥의 毒性和 猛烈한 性味를 억제하는 藥物이며, 使藥은 여러 약물을 引率하여 질병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약의 작용을 조절한다.
- 19) 首務(수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
- 20) 世俗(세속); 世上.
- 21) 偏(편); 側也, 치우칠 편
- 22) 脉訣(맥결); 『王叔和脈訣』. 六朝時代 高陽生이 王叔和를 託名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高氏는 通俗적인 歌訣形式으로 脈理를 해설하여 臨床實際에 연계시켰다. 책가운데 많은 내용이 王叔和의 『脈經』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이다. 講習하기 쉬워서 매우 널리 유포되었으나, 觀點과 脈義의 이해와 文字의 鄙淺등으로 후세에 적지 않은 논평이 있다.
- 23) 脉經(맥경); 西晉의 王叔和가 3세기경에 撰하였으며, 현존하는 中國最 初의 脈學專門書이다. 本書는 漢以前的 脈學을 집대성하였는데, 『內經』, 『難經』 및 張仲景, 華佗 등의 관계가 있는 論述을 取舍選擇하고 分門別로 분류하여 脈理를 설명하고 임상의 실제와 연계시켰다.
- 24) 單看(단간); 손가락으로 한 부위만 짚어서 脈象을 살피는 방법.
- 25) 總看(총간); 寸關尺 三部에 나타나는 九候脈을 종합하여 五行的인 思考로 相生과 相剋을 모두 보는 방법.
- 26) 十二經動脉(십이경동맥); 十二經脈가운데 신체의 표부에 動脈의 박동이 나타나는 부위. 예를 들면 手太陰肺經의 中府, 雲門, 天府, 俠白穴, 手陽明大腸經의 合谷, 陽溪 등이다.
- 27) 三部(삼부); 三部九候. 全身遍診法으로 인체를 頭部, 上肢, 下肢 三部로 나누었을때 每部에는 각각 上中下의 動脈이 있는데, 이 부위를 診脈하여 어느 부위의 脈에서 獨大, 獨小, 獨遲, 獨數의 脈象이 나타나면 그 經絡에 해당하는 臟氣에 寒熱, 虛實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 28) 候(후); 伺也, 살피 후
- 29) 氣口(기구); 본래는 寸口 또는 脈口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右手 寸口 脈의 別稱이다. 『脈經』에 “左爲人迎 右爲氣口.”라 하였다.
- 30) 人迎(인영); 본래는 結喉兩傍의 頸動脈이 박동하는 곳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左手 寸口脈의 別칭이다.

- 31) 內外病因(내외병인); 內因과 外因을 말하는 것으로, 內因은 喜怒憂思 悲恐驚 등 七情의 과도로 인하거나 飲食失節로 氣의 循環이 紊亂하게 되고 臟腑의 眞氣가 손상되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外因은 六淫으로 外感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 32) 寸口(촌구); 氣口. 脈口. 양손 桡骨頭 안쪽 桡骨動脈의 診脈部位로서, 手太陰肺經에 속한다. 『素問·經脈別論』에 “氣口成寸 以決死生.”이라 하였다.
- 33) 內外(내외); 諸家의 설이 많다. ① 寸口에서 厥陰經쪽을 內로, 陽明經쪽을 外로 본다. ② 寸關尺 三部를 각각 둘로 나누어 魚際쪽인 上部를 外로, 尺澤쪽인 下部를 內로 본다. ③ 寸口에서 浮部位를 外로, 沈部位를 內로 본다. 『入門』에서는 浮沈으로 內外를 구분하였다.
- 34) 高下(고하); 高는 寸, 下는 尺部이다. 寸部로 인체의 高部(上部)를, 尺部로 인체의 下部를 관찰한다.
- 35) 定身形(정신형); 寸關尺部로 인체의 上中下部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 36) 生剋(생극); 臟腑五行의 相生相剋關係.
- 37) 榮枯(영고); 盛함과衰함이나, 인체의 건강함과 쇠약함을 말한다.
- 38) 清濁(청탁); 『太素脈訣』에 “脈搏의 樣相이 많으면 그 사람의 平生이 통달하여 富貴功名을 누리게 되고, 脈搏의 樣相이 흐리면 그 사람의 생활이 困窮하다.”고 하였다.
- 39) 窮通(궁통); 사람의 富貴功名과 窮乏함.
- 40) 獨取寸口以決五臟六腑之生死吉凶(독취촌구이결오장육부지생사길흉); 『難經第一難』에 있는 말로, 寸口의 脈象으로 五臟六腑의 모든 상태를 診脈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 41) 茲(자); 此也, 이 자
- 42) 素難(소난); 『素問』과 『難經』.
- 43) 仲景(중경); 張機. 東漢時代의 醫學家. 字는 仲景이며 河南 南陽人. 『內經』 등 古典醫籍의 理論에 의거하여 當代醫家들의 傳染病 診療방법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개인이 心得한 것을 종합하여 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창조성 있는 『傷寒雜病論』을 저술 하였다. 여기서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脈論을 말한다.
- 44) 脉圖(맥도); 朱丹溪의 『脈訣指掌病式圖說』. 朱震亨의 撰으로 전하여오나, 元代의 李杲가 撰함.
- 45) 正傳(정전); 『醫學正傳』. 明代 虞博이 1515년에 撰함.
- 46) 權輿(권여); 虞博의 『醫學權輿』.
- 47) 誦讀(송독); 誦讀.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음.

로 잠시도 상실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脉字를 月字와 永字를 따서 만든 것은 이를 얻어야 영원한 세월을 살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고대의 [맥]字는 血字와 [비]字를 따서 만들었으니 이는 氣血로 하여금 각각 分派하여 經絡으로 유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脉으로부터 經絡의 虛實을 알게 되고, 經絡의 虛實로부터 약의 君臣佐使와 針灸穴法을 결정하게 되니, 이 진맥법은 의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인 것이다. 세속에서 <脈訣>만을 편벽되게 熟讀하고 <脈經>을 알지 못하며, 오로지 單看만을 습득하고 總看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上古의 診法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頭部·腕部·足部에 있는 十二經動脈을 三部로 나누어 각 장부의 병을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氣口와 人迎으로 내외의 病因을 결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오직 寸口만을 취하여 내외로 臟과 腑를 나누고 高下로 인체의 上部·中部·下部를 정하며 臟腑五行의 生剋으로 榮과 枯를 정하고 脈狀의 淸濁으로 窮과 通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難經·第一難>에 「오직 寸口만을 取하여 오장육부의 生死 吉凶을 결단한다.」고 하였다. 이에 <素問>, <難經>을 위주로 하고 겸하여 仲景과 <脈圖>, <脈經>, <脈訣>, <正傳>, <權輿>를 채택하여 이를 보충하여서 脈學을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외우고 읽기에 편리 하도록 하였다.

(2) 寸, 關, 尺 定位

(本文)

掌後高骨¹⁾ 號²⁾爲關³⁾骨關脈 形宛然⁴⁾

1) 掌後高骨(장후고골); 손목부위에서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한 측면에 약간 隆起된 부분으로 解剖學上 橈骨莖突起의 위치이다.

2) 號(호); 감也, 부를 호

次第⁵⁾推排⁶⁾寸關尺 配合天地 人三元⁷⁾.

(解釋)

손바닥 뒤의 高骨을 ‘關’이라 하니, 高骨 곁에 關脈의 형상이 완연하게 있다. 차례로 寸·關·尺을 미루어 배열하여 天·地·人의 三元에 배합시킨다.

(註釋)

昔⁸⁾ 岐伯⁹⁾ 取氣口 象¹⁰⁾黃鍾¹¹⁾ 作脈法 故 氣口之數九分 陽數九也 尺內¹²⁾一寸 陰數十也. 手腕高骨¹³⁾ 爲關 從¹⁴⁾關至魚際¹⁵⁾ 得同身¹⁶⁾之一寸 故 名寸部 從關至尺澤 得同身之一尺 故 名尺部 陽出陰入¹⁷⁾ 以關爲界¹⁸⁾ 故 名關部. 寸 應天¹⁹⁾ 爲上部²⁰⁾ 關應人²¹⁾ 爲中部²²⁾ 尺 應地²³⁾ 爲下部²⁴⁾. 一

3) 傍(방); 並通側也, 곁 방

4) 宛然(완연); 뚜렷하게 나타남.

5) 次第(차제); 次例. 차례있게 나아가는 순서.

6) 推排(추배); 미루어 배열함.

7) 三元(삼원); 人體는 小天地라는 관점에서, 寸關尺을 天地人의 三元에 비유함.

8) 昔(석); 前代, 옛적 석

9) 岐伯(기백); 전설상의 고대 醫家로 후세에 岐天師라 부르기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黃帝와 岐伯 등이 醫藥을 토론하여 醫藥을 창시 하였다 하며, 『黃帝內經』 가운데 대부분의 중요 論述은 黃帝의 질문에 岐伯이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10) 象(상); 法也, 법반을 상

11) 黃鍾(황중); 古代 樂器의 이름. 東洋에서는 度量衡 등의 기준을 黃鍾에서 취하였다.

12) 尺內(척내); 關部에서 尺部까지를 尺內라 하며 길이는 一寸이다.

13) 手腕高骨(수완고골); 위의 掌後高骨과 같음.

14) 從(종); 自也, 부터 종

15) 魚際(어제); 經穴名. 手太陰 肺經에 속하며 榮穴이다. 손바닥 제 1掌骨의 赤白肉際에 위치한다.

16) 同身(동신); 同身寸法. 本人의 어떤 肢體部로 일정한 尺度로 삼아 穴位를 취하는 것을 同身寸法이라 한다.

17) 陽出陰入(양출음입); 陽은 陰에서 生하므로 尺部로부터 寸口로 올라오며, 陰은 陽에서 生하므로 寸口에서 尺部로 내려간다.

18) 界(계); 境也, 지경 계

19) 寸應天(촌응천); 天·地·三元에 배합시킬때 寸部는 天에 해당하여 인체의 上部를 반영한다.

20) 上部(상부); 廣義로는 인체의 上部이고, 좁은 의미에서 頭部를 가리킨다.

21) 關應人(관응인); 天·地·三元에 배합시킬 때 關部는 人에 해당하여 인체의 中部를 반영한다.

部之中 又各有浮中沈三候²⁵⁾ 三三如九 故曰三部九候²⁶⁾ 凡診脈初 以中指揣²⁷⁾按高骨關位 次下²⁸⁾前後二指 人長則疎排²⁹⁾其指 人短則密排³⁰⁾其指 初 輕按³¹⁾ 消息³²⁾之 次 不輕不重 中按³³⁾ 消息之 次 重按 消息之. 魚際者 寸上一分 掌骨後際³⁴⁾ 如魚之頸際然 尺澤者 尺外餘脈 如深澤然.

(解釋)

옛적에 岐伯이 氣口를 취하되 黃鍾을 본받아 脈法을 만들었기 때문에 氣口の 치수가 九分인 것은 陽數인 九를 배합한 것이고, 尺內가 一寸인 것은 陰數인 一을 배합한 것이다. 손목 뒤의 高骨이 ‘關’이니, 關에서 魚際까지가 同身寸法으로 一寸이므로 ‘寸部’라 하고, 關에서 尺澤까지가 同身寸法으로 一尺이므로 ‘尺部’라 하며, 陽이 나가고 陰이 들어오는 것은 關으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關部’라 한다. 寸은 天에 상응하니 上部가 되고, 關은 人에 상응하니 中部가 되며, 尺은 地에 상응하니 下部가 된다. 一部 가운데 또 각각 浮, 中, 沈 三候가 있어

서 三·三은 九가 되므로 ‘三部九候’라 한다. 무릇 진맥할 때에 처음에는 中指로 高骨이 있는 關의 위치에 헤아려 올려놓고 다음으로 關의 진후에 두 손가락을 올려 놓는데, 키가 큰 사람은 손가락을 성글게 배열하고, 작은 사람은 조밀하게 배열하여 처음에는 가볍게, 다음에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중간 정도로, 그 다음에는 무겁게 눌러서 맥박의 동태를 살핀다. 魚際は 寸部에서 一寸 위의 掌骨 뒷 가장자리가 마치 물고기의 頸部 가장자리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魚際’라 하고, 尺澤은 尺部 밖의 남은 脈管이 깊은 못과 같기 때문에 ‘尺澤’이라 한다.

(3) 臟腑定位¹⁾

(本文)

左心小腸 肝膽腎 右肺大腸 脾胃命. 心與小腸 居²⁾左寸 肝膽 同歸 左關定³⁾ 腎脈 元在 左尺中 膀胱 是腑 常相應⁴⁾ 肺與大腸 居右寸 脾胃脈從 右關認⁵⁾ 心胞 右尺 配三焦 此爲初學 入門訣⁶⁾.

(解釋)

左手에는 心·小腸과 肝·膽 및 腎이 있고, 右手에는 肺·大腸과 脾·胃와 命門이 있다. 心과 小腸은 左寸에 있고, 肝·膽은 다같이 左關으로 돌아가 자리를 정한다. 腎脈은 원래 左尺 가운데 있고, 膀胱은 이것의 腑로 항상 左尺 가운데에서 상응한다. 肺와 大腸은 右寸에 있고, 脾·胃脈은 右關을 따라 인지되며, 心胞는 右尺에서 三焦와 배합되니, 이것은 初學이 入門하는 비결이 된다.

(註釋)

- 1) 臟腑定位(장부정위); 五臟과 六腑를 寸關尺部에 일정하게 배속시킴.
- 2) 居(거); 存也, 항상 있을 거
- 3) 定(정); 決也, 정할 정
- 4) 相應(상응); 氣血과 脈이 서로 통함.
- 5) 認(인); 辨識, 알 인
- 6) 訣(결); 方術要法, 비결 결

22) 中部(중부); 廣義로는 인체의 中部이고, 좁은 의미에서 腹部를 가리킨다.

23) 尺應地(척응지); 天人地 三元에 배합시킬때 尺部는 地에 해당하여 인체의 下部를 반영한다.

24) 下部(하부); 廣義로는 인체의 下部이고, 좁은 의미에서 足部를 가리킨다.

25) 浮中沈三候(부중침삼후); 진맥할 때에 輕中重의 3가지 힘으로 맥박을 눌러 脈象을 살피는 방법.

26) 三部九候(삼부구후); 寸口診法. 寸口脈을 寸關尺 三部로 나누고, 每部를 輕中重의 세가지 방법으로 診脈하여 浮中沈의 脈象을 분류한 것.

27) 揣(취); 忖也, 헤아릴 취

28) 下(하); 自上而下, 내릴 하

29) 疎排(소배); 성글게 排列함.

30) 密排(밀배); 조밀하게 排列함.

31) 輕按(경안); 診脈할 때에 손가락을 脈搏에 가볍게 올려놓는 것.

32) 消息(소식); 脈狀의 형태와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살펴 陰陽虛實을 찾아내는 것.

33) 中按(중안); 診脈할 때에 손가락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중간정도로 올려놓는 방법.

34) 際(제); 邊也, 가 제

左心 主血 肝膽腎膀胱 皆精血⁷⁾之隧道⁸⁾故 次附⁹⁾之 右肺 主氣 脾胃命門三焦 各以氣 爲運化¹⁰⁾故 次 附之 分之 曰氣曰血曰脈 總之 惟脈 運行氣血而已¹¹⁾是以 氣血盛 脈盛 氣血 衰 脈衰 氣血 和 脈平 氣血亂 脈病 由此 知脈 乃氣血之體 氣血 乃脈之用¹²⁾也. 心 與小腸 爲表裏 旺於夏¹³⁾而位左寸 沈取 候¹⁴⁾心 浮候小腸 肝與膽 爲表裏 旺於春而位左關 沈取候肝 浮候膽 腎與膀胱 爲表裏 旺於冬而位左尺 沈取候腎 浮候膀胱 肺與大腸 爲表裏 旺於秋而位右寸 沈取候肺 浮候大腸 脾與胃 爲表裏 旺於四季¹⁵⁾而位右關 沈取候脾 浮候胃 命門與三焦¹⁶⁾爲表裏 寄旺於夏¹⁷⁾而位右尺 沈取候命門 浮候三焦. 然 以循環之序 言之則左尺水 生左關木 左關木 生左寸火 左寸火 接右尺火 右尺火 生右關土 右關土 生右寸金 右寸金 生左尺水 生生¹⁸⁾之意不絕 有子母之親¹⁹⁾也. 若以對待²⁰⁾

之位 言之則左寸火 剋右寸金 左關木 剋右寸金 左尺水 剋右尺火 左剛右柔 有夫婦之別²¹⁾也. 然 左手 屬陽²²⁾, 右手屬陰 左寸君火²³⁾ 以尊²⁴⁾而在上 右尺相火²⁵⁾ 以卑²⁶⁾而在下 有君臣之道也. 三部之中 有此自然之理 是以 善診者 診父而知其子也

(解釋)

좌측의 心은 血을 주재하니 肝·膽·腎·膀胱은 모두 精血의 隧道이므로 心의 다음에 덧붙였고, 우측의 肺는 氣를 주재하니 脾·胃·命門·三焦가 각각 氣로써 運化하기 때문에 肺의 다음에 덧붙였다. 이것을 나누면 氣·血·脈이라 하나, 총괄하면 오직 脈은 氣血을 운행할 따름이다. 이리므로 氣血이 왕성하면 脈도 왕성하고, 氣血이 衰殘하면 脈도 衰殘하며, 氣血이 화평하면 脈도 화평하고, 氣血이 혼란하면 脈도 병들어 혼란하게 되니, 이러한 이치로 본다면 脈은 곧 氣血의 體이고 氣血은 곧 脈의 用인 것을 알 것이다. 心은 小腸과 表裏가 되어 여름에 왕성하고 左寸에 위치하니 沈取하여 心을 살피고 浮取하여 小腸을 살피며, 肝은 膽과 表裏가 되어 봄에 왕성하고 左關에 위치하니

7) 精血(정혈); 人體生命活動을 유지시켜주는 營養物質의 총칭으로, 혈액은 본래 先天의 精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後天의 飲食水穀에서 생성되며, 精의 형성도 후천 음식에 의하여 化生하므로 '精血同源' 이라는 설이 있다. 精血은 臟腑機能活動의 물질적 기초이므로 精血의 총만하고 虧損함에 따라 人體의 健康與否를 결정된다.

8) 隧道(수도); 隧路. 隧道는 墓로 통하는 땅굴의 뜻이나, 여기서는 精血이 流通하는 통로를 말한다.

9) 附(부); 寄托, 붙일 부

10) 運化(운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물질과 수분을 흡수하여 온몸에 운반하는 기능.

11) 而已(이이); ~할 따름이다. '而已矣' 로 쓰면 뜻이 더 강조 된다.

12) 用(용); 體用. 사물의 本體와 作用.

13) 旺於夏(왕어하); 心은 火에 속하고 季節에 있어 여름이 이를 주재하므로 心의 기능은 여름에 왕성해진다.

14) 候(후); 伺也, 살피 후

15) 四季(사계); 음력으로 四時의 마지막 달인 三月(辰), 六月(未), 九月(戌), 十二月(丑)로 土氣가 왕성한 달이다.

16) 三焦(삼초); 六腑의 하나. 臟腑를 싸고 있는 최고의 腑이며, 外腑孤腑라고도 한다. 모든 氣를 主持하여 氣를 疏通시키는 작용을 한다.

17) 寄旺於夏(기왕어하); 五臟과 六腑는 四時 가운데 각각 旺盛한 시기가 있으나, 命門과 三焦는 相火를 주재하므로 여름가운데 君火가 왕성한 다음에 왕성해진다.

18) 生生(생생); 生生化化.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면 소멸되고, 소멸되면 다시 생겨나는 것.

19) 子母之親(자모지친); 水가 木을, 木이 火를, 火가 土를, 土가 金을, 金이 다시 水를 生하는 五行의 相生理致.

20) 對待(대대); 양방이 서로 마주 서 對立함.

21) 夫婦之別(부부지별); 五行 相剋關係에 있어서 陽과 陽, 陰과 陰이 배합되면 相剋이지만 陰과 陽이 배합되면 夫婦關係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火가 金을 剋하나 陽火와 陰金은 夫婦關係가 된다.

22) 左手屬陽(좌수속양); 사람이 남쪽을 향하여 섰을 때에 左側이 해가 떠오르는 陽의 방위인 東쪽이 되므로 左手가 陽, 右手가 陰이 되며, 女人은 이와 반대가 된다.

23) 君火(군화); 心火를 말함. 心은 火에 속한 臟器로서 上焦에 있으며 心神을 주재하므로 君主의 官이라 하고, 君主의 官에서 온 몸으로 분배하는 열에너지를 君火라 한다.

24) 尊(존); 高也, 높을 존

25) 相火(상화); 君火에 상대되는 말로, 肝膽腎三焦는 모두 相火를 운용한다. 相火는 命門에 근원을 두었으며 君火와 함께 臟腑를 溫養시켜 人體의 功能活動을 영위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26) 卑(비); 下也, 낮을 비

沈取하여 肝을 살피고 浮取하여 膽을 살피며, 腎은 膀胱과 表裏가 되어 겨울에 왕성하고 左尺에 위치하니 沈取하여 腎을 살피고 浮取하여 膀胱을 살피며, 肺는 大腸과 表裏가 되어 가을에 왕성하고 右寸에 위치하니 沈取하여 肺를 살피고 浮取하여 大腸을 살피며, 脾는 胃와 表裏가 되어四季에 왕성하고 右關에 위치하니 沈取하여 脾를 살피고 浮取하여 胃를 살피며, 命門은 三焦와 表裏가 되어 여름에 붙어서 왕성하고 右尺에 위치하니 沈取하여 命門을 살피고 浮取하여 三焦를 살핀다. 그러나 순환하는次序로 말하면 左尺의 水는 左關의 木을, 左關의 木은 左寸의 火를 生하고, 左寸의 火는 右尺의 火에 접속되고, 右尺의 火는 右關의 土를, 右關의 土는 右寸의 金을, 右寸의

金은 左尺의 水를 生하니 生生하는 의의가 끊이지 않고 子母間의 친함이 있다. 만약 待對하는 위치로 말하면 左寸의 火는 右寸의 金을, 左關의 木은 右關의 土를, 左尺의 水는 右尺의 火를 憚하여 左手의 맥이 강하고 右手는 유약하니 부부의 구별이 있다. 그러나 左手는 陽에 속하고 右手는 陰에 속하니, 左寸의 君火는 높아서 위에 있고 右尺의 相火는 낮아서 아래에 있으므로 君臣의 道가 있는 것이다. 三部 가운데에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가 있으니, 이리므로 진맥을 잘 하는 사람은 부모를 진맥하여 자녀의 병도 알 수 있는 것이다.

2. 寸, 關, 尺의 診脈部位 및 診脈方法에 따른 解釋.

(1) <醫學入門>과 <素問>과의 差異.

素問에서의 尺은 診脈部位로서 說明 된

다. <素問. 五藏別論>에서 「五藏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²⁷⁾에 근거하여 氣口에서 五藏六腑의 脈을 살피고, 여기서 寸, 關, 尺에서 尺의 字典의인 意味는 길이의 單位이며, 醫學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寸에 대비해서 診脈부위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膚를 觸診하여 疾病을 알아내는 부위 중의 하나인 '尺膚'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素問. 脈要精微論>에서 尺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²⁸⁾에서의 尺을 關에서 尺澤側으로 一寸되는 診脈범위로 보았다.

戴啓宗, 滑壽, 張介賓, 馬蒔, 張志聰, 李時珍 등의 학자가 <素問. 五藏別論>에서 「五藏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를 근거로 氣口에서 五藏六腑의 脈을 살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들은 <內經>의 氣口를 <難經. 二難>에서 「脈有尺寸, 何爲也? 然, 尺寸者, 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內, 陽之所終始, 一寸九分, 故曰尺內也。」라 말한 寸, 關, 尺 三部의 總名으로 보아²⁹⁾ 堯骨側 高骨을 '關'으로 잡고 關에서 魚際側까지 구분되는 診脈범위를 '寸'이라 하고 關에서 尺澤側으로 一寸되는 診脈범위를 '尺'이라 하였다.

<素問>에서는 <醫學入門>에서와 달리 診脈方法의 差異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였는데, <素問. 脈要精微論>에서 "尺內兩傍則季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42.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1985, p.59.

29) 程士德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178.

姚止庵注: '氣口, 寸關尺之總名.'

脇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附上左 外以候肝，內以候膈，右外以候胃 內以候脾。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左外以候心，內以候膻中。前以候前 後以候後。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 하였는데, <內經>의 형식은 어떤 주제를 黃帝와 岐伯이 문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膈，右，外以候胃，內以候脾，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左，外以候心，內以候膻中。”은 診脈方法으로 岐伯이 대답하는 부분으로 診脈方法을 설명한 부분으로, 診脈法을 묻는 “帝曰。脈其四時動奈何。知病之所在奈何。知病之所變奈何。知病乍在內奈何。知病乍在外奈何-----”를 도입으로 정하여 “帝曰。脈其四時動奈何。知病之所在奈何。知病之所變奈何。知病乍在內奈何。知病乍在外奈何-----”의 질문 내용 중 “知病乍在內奈何，知病乍在外奈何.”에 대한 대답이 <素問.脈要精微論>의 끝 문단에 “推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腹積也。推而內之，外而不內，身有熱也。”라 하였다. 그래서 “推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腹積也。推而內之，外而不內，身有熱也.”가 속해 있는 “粗大者，陰不足陽有餘，爲熱中也。-----按之至骨，脈氣少者，腰脊痛而身有痺也”를 말단부로 정하였다.

여기서 內外의 언급은 <素問.脈要精微論>의 전후 문단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內者按而紀之’와 ‘外者終而始之’의 張介賓과 高世栻의 注를 참고하면 ‘內’는 손가락을 깊이 누른다는 뜻이고, ‘外’는 깊이 눌린 곳에서 손가락을 위로 들어올려 얇은 곳을 살핀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內外는 맥의 부침을 설명한 글임을 알 수 있다. <素問.五臟別論>에서는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此五臟者，天氣之所生也，其氣象天，故寫而不

藏，此受五臟濁氣，名曰轉化之府，此不能久留，輸寫也，-----所謂五臟者藏精氣而不寫也，故滿而不能實。六府者，轉化物而不藏，故實而不能滿也.”라고 하였으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爲天，濁陰爲地”라 하여 여기 <內經>에서는 傳化之府인 六府의 氣는 清陽인 天의 氣象으로서 五臟의 濁陰을 받아 傳化하는 역할을 하고, 五臟은 清氣를 上升하는 것이 아니라 濁陰인 地의 氣象으로서 精氣를 藏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內에서 臟을 살피고, 外에서 府를 살핀다고 한 張介賓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膈，右，外以候胃，內以候脾，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左，外以候心，內以候膻中.’여기에서 다시 ‘附上左’, ‘右’, ‘上附上’, ‘左’의 용어를 다시 살펴보면, ‘附’를 ‘膚’로 해석한 것이 있는데, “跗當爲膚，古通用字，故爲跗耳”라고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이르렀는데, 이는 ‘附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楊上善은 尺膚診法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며, ‘附上左’에서는 손가락을 떼지 않고, 붙여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진맥하는 字典의 解釋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難經>이전에 ‘十二經診法’과 ‘三部九候法’ 그리고 ‘獨取寸口法’의 원리와 비교하면 尺膚診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 된다.

‘左右’ 또한 <史記>등의 古典에서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나열하지 않고, 중복을 피하여 ‘上下’를 ‘左右’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예로 <儀禮>에서 ‘當左物’의 해석을 주에 ‘左物，下物也.’ 하였으니 古代에는 혼한 표기일 따름이다. 그래서 상기 서술은 ‘上附上’의 ‘左右’를 해석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

라가는 의미로 설명한 '附上'과 '上附上'을 거듭 나누고자 할 때 '左右'를 사용한 것이므로, 본문의 '좌우'는 문맥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층수를 의미 하다고 사료된다.

<素問>에서 <醫學入門>과 비교하여 左手, 右手의 개념을 上下의 개념으로 보고, 寸口에서 脈과의 단면적 개념으로 診脈하는 寸(下部)에서 深部를 腎, 양쪽 바깥부위로 季脅을 살피고,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나타나는 脈象으로 腹中을 살핀다. 그리고, 上部로 올려 各各을 脾胃, 心 膈中, 肺 胸中을 살피 垂直의 概念으로 인식하여, 水平的 概念으로 28脈을 살피는 방식과의 개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內經>의 氣口診脈法을 살펴보면 <內經>의 全篇에서 寸, 關, 尺의 三部脈에 관한 기제가 없고, 또 '關'字를 診脈부위로 설명한 부분이 없을 뿐 만 아니라 氣口를 三部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도 없다. 이는 <傷寒論>과 <內經>에서 寸, 關, 尺의 三部脈에서 氣口를 認識하는데 있어서 前述한 學說과 다른 認識을 하였을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인데, 이 문장은 尺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內經> 全篇中 五臟의 病症 與否를 한 곳에서 切診하는 方法을 說明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尺'에 대한 諸家들의 見解差異 때문에 脈을 짚는 部位로 解釋한 경우와 尺部를 觸診하는 法으로 解釋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이를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醫學入門>에서 診脈 部位의 解釋을 五行 相生으로 解釋 하였는데, 이는 <素問.

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에서 해서 근거를 잡았으며, 臟腑診脈 部位는 <難經 .十八難>에 學說을 바탕으로 하여 五行相生으로 解釋하였다. 이런 觀點으로 上記 文章을 解釋하면, 左尺에서 腎을 살피고 右尺에서는 命門, 左手의 關에서 肝, 右手의 關에서 脾, 左手의 寸에서 心, 右手의 寸에서 肺를 살피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左右手의 寸, 關, 尺에서 五臟을 診脈하는 法은 이미 <內經>에 나타나 있으며, 王叔和의 <脈經>에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고 元, 明, 清代 註釋家들은 주장하였다. 이는 <醫學入門>의 본의가 <難經>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는 <傷寒論>과 <內經>의 診脈 部位 解釋이 差異가 있음을 意味 한다.

(2) <醫學入門>과 <傷寒論>과의 見解 差異.

<醫學入門>의 本文에서의 예로 「左心은 主血하니 肝, 膽, 腎, 膀胱은 皆精血之隧道 故로 次에 附之하고 右肺는 主氣하니 脾, 胃, 命門, 三焦는 各以氣로 爲連化 故로 次에 附之라 分之면 曰氣, 曰血, 曰脈이나 總之면 惟脈은 運行氣血而已라.」 하여 氣血에 의해 脈氣가 橫으로 循環하는 것에 根據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橫的 循環의 바탕에 의하여 「氣口之數九分은 陽數九也요. 尺內一寸은 陰數十也라 手腕高骨이 爲關이니 從關至魚際가 得同身之一寸 故로 名寸部요. 從關至尺澤이 得同身之一尺 故로 名尺部요. 陽出陰入은 以關으로 爲界 故로 名關部라 寸은 應天하니 爲上部요. 關은 應人하니 爲中部요. 尺은 應地하니 爲下部라」

하여 診脈의 定位를 設定하였다.

<傷寒論>에서도 氣血의 흐름 즉 呼吸을 脈과 聯關시켜 說明한 部分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說明한 部分은 <傷寒論. 平脈法>의 「呼吸이 脈을 살피는 根本이다. 脈을 짚었을 때 오는 脈은 빠르고 가는 脈은 느리다는 것은 올라 오는 脈은 빠르고 내려가는 脈은 느림을 말한 것인데 이름하여 內虛外實이라 한다. 그리고 脈을 짚을 때 오는 脈은 느리고 가는 脈은 빠르다는 것은 올라 오는 脈은 느리고 내려가는 脈은 빠름을 말한 것인데 이름하여 內實外虛라고 한다.」이다³⁰⁾ 이 文章은 診脈部位인 三部가 呼出과 吸入에 根據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三部를 <傷寒論>에서는 寸關尺이라고 하였으나, 橫的으로 說明한 <入門>의 尺內一寸은 陰數十也라 手腕高骨³¹⁾이 爲關이니 從關至魚際가 得同身之一寸 故로 名寸部요 從關至尺澤이 得同身之一尺 故로 名尺部요 陽出陰入은 以關으로 爲界 故로 名關部라 寸은 應天하니 爲上部요 關은 應人³²⁾ 하니 爲中部요 尺은 應地하니 爲下部라.」 그리고, <難經>의 「從關之尺是尺內, 從關之魚際是寸內.」 라는 概念과는 相異한 寸關尺의 概念을 갖는데, 이는 <傷寒論>에서 「脈有三部, 尺寸及關. 營衛流行, 不失銜銓, 腎沈心洪肺浮肝弦, 此自經常, 不失銖分, 出入升降, 漏刻周旋, 水下二刻, 一周循環, 當復寸口虛實見焉.」³³⁾ 여기서 呼出吸入하여 脈이 升降하면서 全身을 循環하여 寸口에 모이므로, 寸口에서 五臟虛實의 살핌을 說明한 文章이다. 따라서 <傷寒論>에서는

<入門>이나 <難經>과 마찬가지로 診脈時 呼吸의 重要함을 說明하였으나 診脈方法을 橫的으로 說明하지 않았다.

(3) <醫學入門>과 <難經>과의 見解 差異.

<醫學入門> 診脈, 寸關尺定位, 臟腑定位를 本文의 根據로 寸, 關, 尺을 定義한 緣由를 살펴보면, <難經>의 一難과 二難을 根據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一難에서는 '百刻(하루동안)에 榮衛는 陽經을 二十五도 돌고, 陰經을 二十五도 돌아서 한 週期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五十도가 되면 다시 手太陰肺經의 寸口에서 만나게 되는 것으로 五臟六腑의 시작과 끝이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寸口脈을 取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고, 이 寸, 關, 尺은 診脈부위로서 손바닥 뒤의 高骨을 '關'이라 하여, 枯骨 곁에 關脈의 形象이 完全하게 있는데, 차례로 寸, 關, 尺을 配列하여 天地人의 三元에 配合시킨다.

氣口에 대한 解釋은 <難經. 一難>에서 잘 言及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敍述되어 있다. '一難曰: 十二經皆有動脈,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 何謂也? 然, 寸口者, 脈之大要會, 手太陰之動脈也. 人一呼脈行三寸, 一吸脈行三寸, 呼吸定息, 脈行六寸. 人一日一夜凡一萬三千五百息, 脈行五十度周於身, 漏水下百刻, 榮衛行陽二十五度, 行陰亦二十五度, 爲一周也, 故五十度復會於手太陰. 寸口者, 五臟六腑之所終始, 故法取於寸口也.'이라하여,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寸口脈으로 五臟六腑의 질병과 生死吉凶을 판단 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難經本意>에서는 '寸口를 氣口라고 하는데 氣口の 아래를 關이라 하고, 그 아래를 尺이라고 한다. 모두 手太陰肺經에

30) 張機, 仲景全書, 前揭書, p. "呼吸者脈之頭也. 初持脈, 來疾去遲, 此出疾入遲, 名曰內虛外實也. 初持脈, 來持去疾, 此出遲入疾, 名曰內實外虛"

31) 手腕高骨(수원고골); 위의 掌後高骨과 같음.

32) 關應人(관응인); 天地人 三元에 배합시킬 때 關部는 人에 해당하여 人體의 中部를 반영한다.

33) 上揭書, p. 55.

속하며 手太陰肺經은 百脈以流注하고 調會하는 곳이다.'라 하고, <靈樞. 제11편>에 이르기를 '脈은 太淵에서 모인다.'라 하였고, <素問. 經脈別論>의 '肺調百脈'과 같은 말이다. 手太陰肺經은 十二經 營衛循環의 出發點인 동시에 終點이다. 氣口는 五臟六腑의 氣의 狀況이 잘 나타나므로 이곳을 診察함으로써 全身 각 器官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이로써 生死吉凶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難經. 十八難>에서 臟腑의 診脈부위를 說明한 部分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十八難曰: 脈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 陽明, 足有太陽. 少陰, 爲上下部, 何謂也? 然, 手太陰. 陽明金也, 足少陰. 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 少陽木也, 生手太陽. 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 少陽火, 生足太陰. 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膈以下至齊之有疾也; 下部法地, 主齊以下至足之有疾也. 審而刺之者也.'

上記 原文의 寸口脈은 주로 經脈과 軀幹 部位를 가르킨다. 經脈과 臟腑의 關係에 根據 하면 手少陰經은 心에 屬하고 手太陽經은 小腸에 屬하므로 '寸'부에 그 脈象이 나타난다. 足太陽經은 脾에 屬하고 足陽明經은 胃에 屬하므로 '關'부에 그 脈象이 나타난다. 足少陰經은 腎에 屬하고 足太陰經은 膀胱에 屬하므로 '尺'부에 그 脈象이 나타난다. 이 6個의 臟腑의 正確한 部位는 이미 隱然 중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足厥陰肝, 手厥陰心包, 手太陰肺와 大腸, 膽, 三焦 등은 具體的인 部位가 確定되어 있지 않다. <脈經> 卷一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

順第七>에서 인용한 <脈法讚>에서 「肝心出左, 脾肺出右, 腎與命門俱在尺部.」라고 했는데, 이는 「心の 部位는 左手의 關前寸이고 手少陰經이다. 肝의 部位는 左手의 關上이고 足厥陰經이다. 肺의 部位는 右手의 關前寸口이고 手太陰經이다. 脾의 部位는 右手의 關上이고 足太陰經이다. 腎의 部位는 左手의 關後尺中이고 足少陰經이다. 왼쪽은 腎에 속하고 오른쪽은 子戶, 즉 三焦이다.」라는 뜻으로 上記 原文의 論述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難經. 五難>에서는 다음과 같이 寸口脈을 짚는 法을 서술하고 있다.

'五難曰: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與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與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舉指來實者, 腎部也. 故曰輕重也.'

上記 原文에서는 五臟脈位의 深淺의 順序를 確定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는 上記 <難經. 十八難>과 <二難>의 '尺寸者, 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內, 陽之所終始, 一寸九分, 故曰尺寸也.'라는 意思는 同一 書籍에서의 理論的으로 相互 矛盾되는 것이다.

(4) 寸, 關, 尺의 五行相生 配屬에 대한 解釋의 差異.

<難經. 十八難>에서는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膈以下至齊之有疾也; 下部法地, 主齊以下至足之有疾也. 審而刺之者也.」라 하여 三部를 寸關尺으로 보았다. 三部九候의 診法은 <素問. 三部九候論>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上部天은 머리에 있고, 中部人은 上肢에 있고, 下部地는 下肢에 있다는 內容으로 全身의 診脈法에 해당한다. 여기서 寸, 關, 尺과 浮, 中, 沈을 三部九候라 했는데 寸, 關, 尺 三部의 部位가 人體의 上中下 三部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러한 理論은 “獨取寸口診脈法”의 具體的인 內容으로 <難經>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는데, <難經>에서는 <內經>의 氣口를 寸關尺의 總稱으로 解釋하고, 이를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과 聯關시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難經>學說을 기본으로 한 <醫學入門>에서는 유독 左右手의 寸關尺部位에서만 五行의 相生을 언급하고 脈動이 나타나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五行 相生의 언급이 없으며, 또한 皮膚 表面에서 水平的으로 五行 相生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經脈은 環周不休하므로, 人體의 脈動이 나타나는 모든 部位에서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뜨며,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淸陽在上, 濁陰在下)이 自然의 法則이며, 五行의 形象을 人體의 組織에서는 皮血肉筋骨 順으로 配屬한 것이 韓醫學의 基本의 思考일 것이다. 그러므로 左右手의 寸關尺部位 만이 五行의 相生으로 診脈 部位를 設定하고 더군다나 皮膚 表面에서 水平的으로 五行 相生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難經·十八難>에서 ‘上部法天, 中部法人, 下部法地’ 하는 주장에도 相互 矛盾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診脈 部位에서 君火, 相火의 概念的 差異.

<醫學入門>을 비롯한 <難經> 과 <脈經>의 주장에서 臟腑의 診脈部位를 說明한 部分 중 君火, 相火의 診脈 部位를 <內經>의 君火, 相火의 位置와 比較하면 아래와 같은 差異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難經·十八難>에서 ‘生手太陽. 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 少陽火, 生足太陰. 陽明土’ 라고 하여 君火는 上部에, 相火는 下部에 配屬 시켰으나, <素問·五運行大論>에는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流行於其間³⁴⁾’ 이라 하고, <素問·六微旨大論>에는 ‘顯明之右, 君火治之, 君火之右, 相火治之³⁵⁾.’라 하여 君火는 東南方に 配屬되며 相火는 南方에 配屬되게³⁶⁾ 되므로 君火와 相火의 位置를 左手의 上과 右手의 下로 說明한 上記의 理論은 君火와 相火의 位置를 論한 <內經>의 理論과 一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君火와 相火의 診脈 部位 뿐만 아니라, 腎의 診脈 部位를 馬蒔, 張志聰이 解釋한 <難經·十八難>의 五行相生으로 본 學說³⁷⁾, 즉 左右手로 나누어 天一水를 左手의 尺으로, 地二火를 右手의 尺으로 解釋하였는 바³⁸⁾, 이는 下部와 개념상 의미가 통하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前揭書, p. 236.

35) 上揭書, p. 241.

36)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 p. 489.

‘顯明之右, 君火之位者, 日出顯明, 卯地之右, 在方屬東南, 在時屬春分卯中之後, 爲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者, 地氣至南方, 相火位行命, 治夏至前後三之氣.’

37)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 p. 137

‘天爲陽, 地爲陰. 東南爲陽, 西北爲陰. 聖人南面爲立, 左爲陽, 右爲陰.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是以心肝居左也. 地二生火, 火生土, 土生金, 是以脾肺居右也. 此先天之五行本于陰陽水火, 分而上生, 非藏體之位也.’

38) 上揭書, p. 137.

‘天爲陽, 地爲陰. 東南爲陽, 西北爲陰. 聖人南面爲立, 左爲陽, 右爲陰.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是以心肝居左也. 地二生火, 火生土, 土生金,

는 ‘天一水’의 ‘水’와 ‘地二火’의 ‘地’를 尺과 關關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內經>에서는 尺을 左右手로 나누지 않았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東方生風, 南方生熱, 中央生濕, 西方生燥, 北方生寒,’이라 하였다. 그리고 <周易.河圖>를 살펴보면 ‘天一生水於北, 地二生火於南’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天一水는 北方의 개념인 下에 위치하며 地二火는 南方의 개념인 上에 위치한다. 이상에서 볼 때 右尺部인 下에 地二火가 있다는 張志聰의 設은 <內經>과 <周易>의 火의 위치와는 附合되지 않는다.

(6) 診脈 方法上의 寸, 關, 尺 位置

<入門>에서는 橫的인 診脈位置에서 垂直的 意味로 ‘寸應天 爲上部 關應人 爲中部 尺 應地 爲下部 一部之中 又各有浮中沈三候 三三如九 故 曰三部九候.’ 하여 橫的으로 寸, 關, 尺으로 區分하고 各各 浮, 中, 沈을 두어 九候라 表現하였는데 反해서 <傷寒論>에서 ‘脈有三部, 尺寸及關. 營衛流行, 不失衡銓.’하여 脈의 三部인 寸, 關, 尺이 營衛氣血과 더불어 上下로 活動하므로 輕重으로 測定하는 衡銓처럼 輕重을 正確하게 살펴야 함을 說明한 文章이다. 그러므로 이를 橫的 概念인 <入門>의 寸, 關, 尺과 同一視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輕重을 자세히 說明한 部分이 <傷寒論>에는 “平脈法”의 ‘經說, 脈有三菽, 六菽重者, 何爲也? 師曰, 脈者人以指按之, 如三菽之重者, 肺氣也, 如六菽之重者心氣也, 如九菽之重者脾氣也, 如十二菽之重者肝氣也, 按之至骨者腎氣也. 假令下利, 寸口關上尺中, 失不見脈. 然, 尺中時一小見脈再舉頭者腎氣也. 若見損脈來至, 爲難治.’ 하는 文章이 있는데, 이

文章은 <難經>에서 引用된 것인데, 五藏의 診脈部位를 輕重으로 說明한 前 文章의 內容을 前提로 하여 病證을 예로 들어 寸, 關, 尺으로 說明하였다. 여기서 腎의 診脈部位인 ‘按之至骨’의 境遇는 ‘尺中’과 같은 것인데, 診脈部位의 深部를 가르키는 것이다. “平脈法”에서는 ‘寸脈下不至關爲陽絕, 尺上不至關爲陰絕.’이라하여 寸, 關, 尺 部位를 寸은 淺部에 尺은 深部에 해당되며, 關은 尺과 寸의 中間部位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위에서 <黃帝內經素問>, <傷寒論>, <難經>을 引用하여 <醫學入門>, <脈經>의 診脈部位인 寸, 關, 尺 定位를 比較하여 보았는데, 前者의 診脈法은 浮沈으로 說明한 輕重法이고, 寸, 關, 尺은 浮, 中, 沈으로 認識하였다. 이에 반해, 後者는 寸, 關, 尺을 橫으로 定義하여 ‘定位’하였고, 浮沈에 있어서는 ‘寸應天 爲上部 關應人 爲中部 尺應地 爲下部. 一部之中 又各有浮中沈三候 三三如九 故 曰三部九候.’하여 各各의 浮, 中, 沈으로 九候로 說明하여 前者의 學說과 比較된다.

IV. 結 論

<醫學入門>은 <脈經>과 <難經>의 脈論을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診脈, 寸關尺定位, 臟腑定位, 諸脈體狀, 諸脈相類, 諸脈主病, 諸脈相兼主病, 臟腑六脈診法 등으로 分析 發展 시켰다. 여기서, 診脈, 寸關尺定位, 臟腑定位를 고찰하여, 그 基本 骨子가 <黃帝內經素問>, <傷寒論>, <難經>의 條文과 差異를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를 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所見을 얻게 되

是以脾肺居右也. 此先天之五行本于陰陽水火, 分而上生, 非藏體之位也.’

었다.

1. 寸口는 氣口라고 하는데 이 곳은 五臟六腑의 氣의 狀況이 가장 잘 나타나므로 이곳을 診察하면, 全身 各 機關의 狀態를 알 수 있는데, <醫學入門>에서는 氣口를 寸, 關, 尺으로 區分 하였다. 그런데, <黃帝內經素問>의 “氣口診脈法”을 살펴보면 <黃帝內經素問>의 全篇에서는 寸, 關, 尺의 三部脈에 관한 記載가 없고, ‘關’자를 診脈 部位로 說明하는 部分이 없으며, 氣口를 三部로 나누어 說明한 部分도 없다. 그리고 <傷寒論>에서 寸, 關, 尺의 三部脈에서 氣口를 認識하는데, 魚際側의 ‘寸’, 氣口の ‘關’, 尺澤側의 ‘尺’을 氣口の 浮, 中, 沈으로 尺寸의 概念을 認識하는 것과는 比較 된다.

2. <醫學入門>에서는 寸, 關, 尺을 橫的으로 定義하였다. 浮沈에 있어서는 「寸은 應天하니 爲上部요, 關은 應人하니 爲中部요, 尺은 應地하니 爲下部라. 一部之中에 又 各有浮中沈三候하여 三三如九, 故로 曰三部九候.」 하여 各各의 浮, 中, 沈으로 九候로 說明하여 ‘定位’하였는데, 비하여 <傷寒論>에서 「脈有三部, 尺寸及關. 營衛流行, 不失衡銓.」 하여 脈의 三部인 寸, 關, 尺이 營衛氣血과 더불어 上下로 活動하므로 輕重으로 測定하는 衡銓처럼 輕重을 正確하게 살펴야 함을 說明한 것과 같이, <傷寒論>에서는 寸, 關, 尺을 浮, 中, 沈의 概念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醫學入門>에서는 左手의 寸, 關, 尺과 右手의 寸, 關, 尺을 橫的으로 各各 臟腑에 配屬시켜서 左手에서 心, 肝, 腎을, 그리고 右手에서 肺, 脾, 命門을 診脈하게 하여서, 各各의 臟腑를 五行의 相生, 相剋을 利

用하여 診脈하게 되는데, <黃帝內經素問>, <傷寒論>등 에서는 氣口를 診脈하여 臟腑를 診察할 때, 浮沈으로 認識하여 ‘上部肺, 次上部心, 又 脾, 最下接骨部腎, 附上肝’으로 主張 하는 <難經>과 같이 層數로 解釋하여 比較 된다. 그러므로, <醫學入門>의 ‘寸關尺定位’와 ‘臟腑定位’의 ‘定位’는 <黃帝內經素問>, <傷寒論>, <難經>의 氣口診脈과는 比較 되며, 同一視 할 수 없다는 所見을 얻었다.

V. 參考文獻

1.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香港,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2. 戴啓宗 脈訣刊誤(影印本). 香港, 商務印書館,
3. 馬蒨,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4. 楊上善 黃帝內經素問太素. 서울, 大成出版社, 1986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6.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77
7. 張機 鷄林古本 傷寒雜病論. 廣西, 廣西人民出版社, 1980
8.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東京, 正言出版社, 1965
9. 林輝鎮 傷寒論新解. 臺北, 益群書店, 中華民國75
10. 張機 仲景全書(影印本). 서울, 大成文化社,